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chapia5@hanmail.net

### 방장스님들의 '눈높이' 시사 범위

1970년대 말, 사회적 영향력의 부재로 굴욕적인 불교계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1년 1월, 조계종 새 종정에 추대된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山是山 水是水)'라는 법어 한 마디로 세상의 소란을 잠재웠다.

뜻도 모르고 울조리던 '산사산 수시수' 법어가 전설이 된 요즈음도, 부처님오신날이나 결혼·해제 때마다 발표되는 방장스님들의 법어는 혼란한 세상에 감로수와 같은 청량함을 선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어가 '여전히 어렵다'거나, '세간의 삶과 동떨어진 법문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하안거 해제법이 가운데는 시사적인 법문들이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끈다.

조계종립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최근의 종교편향 사건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과 관련, 차분한 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욕하거나 때려도 묵인 대처하라고 하셨다"며 "요즘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방해한다지만 우리는 상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종교 편향 사건과 관련, 외도와 같이 가볍게 처신하지 말고 불제자 답게 시비·분별을 넘어선 자리에서 담담하게 대응하라는 지적이다. 그들의 망동에 대해 똑같이 흥분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냉철히 응대하되, 우리 자신부

터 "아만을 꿇고 남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으며" 가장 큰 분별심인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공부에 매진하자는 법문이다.

한편 태고종립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은 불교학계의 '오매일여(痲一如)' 논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매일여란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처럼 수행의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며 "이는 선수행의 기본 자세를 제시한 말씀으로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논쟁이 어찌 무익한 일일겠는가, 다만 수행자의 입장에서선 알음알이나 이론보다 실천으로 스스로 증명함이 소중하다는 뜻이다.

세간사에 관심을 둔 방장스님들의 이러한 법어는 세간과 출세간이 들어 아닌 불이(不二)의 입장에서 불자들을 배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수좌에게는 '생사 해탈'이란 일대사가 목전의 과제이지만, 재가불자에게는 세간사 역시 버릴 수 없는 공부거리이기 때문이다. 출·재가 대중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과거 보다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도록 일깨우는, 추상적인 말 보다는 현실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법어는 더욱 불자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우리 시대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법어가 마음팍을 적시는 단비처럼 쏟아지길 기원한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c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news.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 현대불교

###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독선·오만·편향정권 참회하라”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는 8월 10일 사중 스님 18명과 1200여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독선과 오만, 거짓 이명박 정권 규탄 사국법회’를 개최했다. 김성우 기자

### “사장 공석 더 이상 안된다”

### 진흥원 이사회, 불교방송에 이사회개최 촉구

사장 없이 이사장 영당 스님 직할 체제로 운영 중인 불교방송에 사장추천 기관인 대한불교진흥원(직무대행 민병천) 이사들과 불교방송 일부 이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는 8월 12일 영당 스님에게 '불교방송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발송했다. 진흥원 이사회는 이 공문에서 "7월 30일 예정된 이사회를

긴급하지도 않은 사유로 2~3일 전 취소 후 무기한기했다"며, "추천한지 2달 반이 넘는 사장 선임을 위해 가능한 최대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 제대로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의 '불교방송 이사회 소집요구서'는 불교방송 전체 이사회 16명 중 5명을 제외한 11명이 합의한 것이다. 조동섭 기자

### 전국 선원 하안거 해제 2259명 일제히 회향

전국 95개 선원 수좌 2259명이 동참한 불기 2552년 무자년 하안거가 8월 15일 해제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무자년 하안거 선사방함록(禪坊芳响錄)>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95개 선원(총립 5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4곳)에서 총 2259명(비구 1140명, 비구니 924명, 총립 195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하안거 해제법어를 통해 "대중들은 만행기에 선지식을 만나거든 결계동안 국불교 최고의 공인종교를 제대로 점검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중생과 고통을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생활불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해제법어 전문 8면) 김성우 기자

### 태고종 '조사위' 구성키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한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8월 19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탈보전에서 '제9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이 종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요청한 이같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 “종파 제도 초월, 수행 봉사로 거듭나자”

### 고준환 교수, 기조강연서 불교계 비판

“불교는 종파성과 제도적 경직성을 벗어나 수행과 봉사 위주의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불교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때, 교계 지식인층에서 불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비구와 비구니가 1:0.1 비율로 구성된 1.1부종회”라는 직언도 서슴치 않고, 불교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는 고준환 교수(경시대·사진)다.

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홍표, 이하 교불연)가 8월 18~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남)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교수불자대회에서 초대 교불연 회장을 역임한 고 교수는 '미래세대의 불교

'기득권층인 비구 스님들의 독점육에 기초한 1.1부종회'라 지적했다.

이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중앙종회를 출가자 상원, 재가자 하원으로 나누더라도 반드시 사부대중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교수는 “마을공동체(安産業) 등을 통해 무주상보시(無住相보시) 대중에게 다가갈 것도 강조했다.

창립20주년을 맞은 교불연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국불



### 조계종종회 사부대중으로 구성해야

### 불자교수들 통일과 세계화에 관심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고준환 교수는 “2000여년간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룬 불교가 전통은 살아있되 사회적 세력면에서 정체됐다”고 진단하고, 불교 중흥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 선도를 주장했다.

▲어법한 종단·스님·신도 ▲실천 불교 풍토 조성 ▲대중에게 주는 불교, 다가가는 불교를 불교 중흥의 조건으로 제시한 그는 한국불교 최고의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조계종부터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초 스님을 비롯해 정산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위원장) 등 교계지도자와 국내외의 교수불자 등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고 교수는 “부처님은 교단을 사부대중으로 구성하라고 가르쳤다”며, 현재의 조계종 중앙종회를

교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로 교불연 선원을 건립해 세계선정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민족통일에 기여하고, 세계교수불자연합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고 교수는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고 권력종교화해 십자군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일으킨 인류역사에 큰 죄를 짓는 종교라면 인류평화를 위해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강력비판하며 종교들의 평화적다원화를 주장했다.

“영구평화를 위해 UN을 발전적으로 대체한 뒤, 세계정부를 세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합중(和合衆) 경제체제를 이루자”는 고준환 교수의 세계비전도 주목 받았다.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장고 끝에 던진 고준환 교수의 개혁 발언을 계기로 불교계가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지키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 단체, 사찰, 강연, 강단,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영상사업단/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연대 영상학 강사)

###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삼보에 지심귀명례 하옵나.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의 가치 미증유의 난국으로 전락되는 심각한 현실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니 될 지금 우리 사회는 말세적 격동과 종극의 혼돈을 맞고 있습니다. 이때 때 일수록 청원 신앙의 용기를 갖고 자아를 일깨워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된 종교의 인식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소납은 생각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신계의 황폐로 진리의 힘과 정의의 숭고한 양심이 부패하고 불의와 아합하며 살아온 소수의 횡포에 길들여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절박처럼 느껴지며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부처님 전에 발원하며 전국의 종도님 전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종도 여러분!

2008년 7월 29일 대한불교 법화종 전국종도모임에서 부추낸 소납이 정화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간 총무원장직 이화 임직원들이 저질러온 부정부패 및 따지지 못한 방법으로 의한 여러 종도들의 억울함을 모두 오아서 정화추진위원회 대표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종도님들의 억울함을 해결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 총무원장 재임 시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소명 자료와 같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정화추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직접한 절차를 거쳐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안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간주 추후 구재의 길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법화종 종찰은 부 의원회가 종도님들과 합심하여 종단정화 후 사자상속이든 직계상속이든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으로 남아 있는 한 현주지스님께서 전법과 기도에 지장이 없도록 추후 새로이 구성되는 총무원과 중앙종회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종헌 준봉에 명시하여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기를 틈타 대한불교 법화종을 탈퇴하거나 전종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용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종단이 외해되는 것이고 그간의 노력이 헛되이 하기에 정화추진위원회는 강력히 그 대비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종도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의 문화를 창달하며 지켜온 호국의 불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제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바른 법을 종생에게 전법하며 부처님의 법음이 완하게 밝혀지는 대한불교 법화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을 세운다면 못 이룰 리 없는 우리들의 정신적 집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호국불교 정신으로 모든 종도가 개인적인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종단과 종도를 위한 지혜를 모은다면 틀림없이 부처님은 저희의 발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화합하는 종단 수행과 정진으로 밤을 세는 종도들로 다시 태어나길 소납은 부처님께 발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보은으로 날마다 좋으시며 두루 강안하시길 바랍니다.

### 총무원장 및 임직원들의 부당 부정행위 신고

여러 종도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어 무궁한 발전과 건승하시기를 정화추진위원회는 발원 드리며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1. 현 총무원장 및 임직원들의 부당 부정행위로 인한 사찰의 인적 물적 피해 사항 모든 것을 아래의 기일 내에 소명 자료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기일 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 추후 대한불교 법화종, 또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일 시 : 2008년 8월 10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 신고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 신고 된 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지켜집니다.

불기 2552(2008)년 8월 5일

### 대한불교 법화종 전국 사암주지 및 대표임원 여러분

### 결 의 문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불교 법화종의 전국사암 주지 및 대표임원들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절연한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해륜 총무원장이 서리로 처음 시작할 때 다스리고 가르치 못해도 자비(慈悲)로 이해해 왔고 총무원장이 당선된 이후에도 진실어린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재임기간 중 종도의 지지를 받은 총무원장이 되길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과 동시에 편중 인사와 편중 세움으로 경도공구가 모두 탈종하고 여러 가지의 속세법에 의한 관권이 있었음에도 우리 종도들은 믿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무원장은 몇 임직원과 결탁하여 종도들이 피압으로 쌓아온 사암을 소위 종찰이란 명목으로 공갈 협박하고 또는 감취하여 그들만의 배 불리는데 열안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벌, 출가사찰의 허위, 속세법에 의한 범금형, 종도가 구속되는 폭행사건, 비구니와 의 부적절한 관계, 김창교구의 집단편중, 교헌사, 대방사, 금불사, 안정사, 흥곡사 그 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현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도의 대의기반인 중앙종회마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몇몇 종회의원들은 같은 무리로 지금까지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자신들의 이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종헌준봉은 직접적으로 우리 종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어떻게 계정 되었는지 우리가 낸 종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이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꼭 종도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몇몇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 종도들도 소상히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모인 종도만이 아니라 전 종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 전 종도가 합심하여 종단의 혁신과 화합하는 종단이 되게 합시다.

종도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중앙종회는 깊은 성찰을 바랍니다. 종도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가 신속하고도 책임 있는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중앙종회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정화추진위원회와 전국종도들은 더 이상 내면의 평화에 머물지 않고 종단과 종도의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번지 / 전화 054)973-2521~2)